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 : 경희가 그 길을 연다

70주년 기념 축사

이한구
경희대학교 7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기획위원장



경희 70주년은 경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인류 차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문명의 전환기에 고등교육의 역할과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선도적으로 추구해 온 경희가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다시 100년을 향한 대장정을 출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희 70년의 역사는 대학의 신화를 창조해 온 과정이었고,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을 비롯한 경희가족 구성원은 모두 그 신화 창조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경희는 창학의 이념부터 남달랐다. 대다수의 대학들이 교육구국이나 국가발전을 대학의 중요 이념으로 삼는 상황에서 경희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창학의 이념으로 설정했다. 문화세계란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인류가 추구해 갈 이상세계였고, 그것은 오토피아(Oughtopia)로 집약되어 나타났다. 1954년 건립한 창학이념의 탐이 지금도 교정의 중심에서 역사의 증인처럼 경희인을 지켜보고 있다.

남다른 창학 이념으로 출발한 경희, 문화세계의 창조 추구

경희의 휘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며 세계 사람들은 한 가족이다. 우리는 지구 협력사회의 정신으로 평화와 인류를 위해 노력하려 한다.” 이런 이념이 기초가 되어 경희는 38년 전 ‘UN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주도했고, 단순한 명문 대학이 아니라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대학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창학의 이념 아래서 경희는 평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화의 학풍과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을 추구해왔으며,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문의 탁월성을 실현하면서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경희 70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반 50년은 기초토대를 다지는 시기였고, 후반 20년은 비약적 성장시기였다. 전반부에는 세상 사람들로 부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경희는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고, 대학의 신화를 창조한다는 찬사를 받기 시작했다. 평범한 보통 대학에서 아시아 대학 평가 31위,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27위 및 국내 1위, 국내 종합 대학 5위, 국제화 2년 연속 국내 1위를 달성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성장이 더욱 값진 이유는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시류에 역행하면서도 고등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설립이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모든 대학들이 현실과 타협하여 실용주의 교육에 매달릴 때, 경희는 오히려 인문학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을 융합시켰고, 실용적 교육 보다

는 진리를 탐구하는 순수학문에 더욱 방점을 찍음으로써, 고등교육의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이것은 한국 대학 교육에서 새로운 한 획을 긋는 혁명적 시도였다.

기초 토대를 다진 50년 비약적으로 성장한 20년

그간의 성취를 계승하고 앞으로의 비상을 추진하기 위해 7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는 클러스터 형태의 9개 분과로 나누어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로는 학술 분과, 평화 분과, 사회체육 분과, 글로벌 온라인 분과, 사회문화 분과, 바이오헬스 분과, 미래과학 분과, 교사편찬 분과 등을 들 수 있는데, 각 분과 별로 분과위원장과 10명 내외의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기념사업을 기획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여 개의 단과대학도 대학 별로 특성에 맞게 학술 행사와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아마 연말쯤에는 이런 행사들의 결실을 책으로 발간하거나 영상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올해 기념행사는 외면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대신, 경희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우리 사회와 인류를 향해 경희가 추구하는 학문과 실천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 : 경희가 그 길을 연다>이다. 이런 주제는 학문도 진공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간 속에서,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는 지구적 공간속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함축한다. 이것은 바로 학문과 실천을 끊임없이 융합시켜 온 경희의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후 변화와 지구 환경의 파괴, AI와 트랜스 휴먼, 빈부 양극화, 전쟁과 평화, 이념적 갈등 문제 등이 모두 현대 인류가 당면한 과제들이다. 이들은 종합적으로 인류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70주년을 맞아 경희는 이런 주제들에 관해 학술적 탐구를 진행하면서, 가능한 실천적 해답까지도 추구하고자 한다.

5월 17일 70주년 기념식에서는 경희 가족들이 모두 함께 현대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9월 제38회 평화축제 때는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국제기구들과 함

께 <미래세대에게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국제학술 및 실천회의를 개최하고, 인류 사회를 향해 <기후윤리실천 선언문: climate ethics manifesto>을 선포하려고 기획하고 있다. 통상 PeaceBAR라 불리는 평화축제의 ‘BAR’는 spiritually Beutiful, materially Affluent, humanly Rewarding의 약자다.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인간적으로 보람되다는 의미의 이 축제는 아마 70주년 기념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우리 노력의 결실들은 모두 모여 자연스럽게 경희 100주년을 향할 것

이런 노력들이 가져올 결실들은 모두 모여 자연스럽게 경희 100년을 향한 담대한 대장정으로 연결될 것이다.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평화로운 지구사회, 풍요로운 미래문명의 창달을 위해 비상하는 경희의 신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경희의 미래가 곧 인류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경희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 있으라.

100주년을 향해가는 전환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재식
교수회의 및
대학평의원회 의장



대학주보사로부터 구성원 참여마당 원고 청탁을 받고서 이제 70주년 경희의 오늘과 100주년 경희의 미래를 그려본다. 한편으론 기대와 설렘이, 다른 한편으론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미래의 도도한 물결로 오늘의 아쉬움을 함께 밀어내는 심경으로 경희인의 당면과제와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본다.

경희 역사는 한국 근대사의 태동과 맥을 같이 한다. 당초 경희대의 전신은 신흥초급대학이며, 이는 일제 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던 신흥무관학교의 계보를 잇는 전문대학이었다. 1951년 5월 조영식 설립자계선 오로지 프론티어 정신으로 당시 상재학원의 신흥초급대학 가인가증을 인수, 혼신의 힘을 다해 제2의 창학을 감행하였다. 1953년 11월 지금의 회기동 자락에 새동지를 틀고, 1960년부터는 ‘경희대학교’ 라는 이름으로 대학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특히 선배님들은 6·25 전란 후의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경희의 터전을 닦기 위해 항량

하지만 한 이 별판을 수없이 동분서주하였을 것이다. 이렇듯이 아름다운 경희캠퍼스 곳곳에는 우리 설립자의 숨결과 선배들이 다져온 경이로운 발자취가 듬뿍 배어 있다.

우리 경희대는 공적인 교육기관이면서도 한편으론 오너십이 발휘되는 전형적인 사립대학이다. 따라서 학교법인 경희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을 기업의 총수나 CEO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막강한 자율적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받는 자리임에 틀림없다. 특히 현재 경희학원은 설립자 자녀세대에 의해 설립자의 창학정신이 계승되어 운영되고 있다. 실제 친족이사 두 분이 활동하고 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듯, 재단은 급변하는 환경에 걸 맞는 경영철학과 리더십으로 경희인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설립자가 선견지명으로 제시한 교훈이자 유훈인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우리 세대에서 구현할 책무가 있다.

오늘의 우리 경희인 모두는 이를 지켜보고 있다. 경희역사 이래 최초로 민주적 선거제도에 의한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로 행정공백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총장선출규정 제정을 둘러싸고

법인, 학교당국, 각 구성원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혼란스런 양상마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지 않은 것은 물론, 더 큰 위기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은 당혹스럽지만 우리 경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진정한 경희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하나의 진통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진통이 일시적인 통과리례에 불과하길 바란다.

이제, 우리 경희는 이 시점에서 향후 70년을 내다보면서 자신에게 차분히 물어야 한다. 명실공히 학원의 민주화를 구현할 단단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더욱 비약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희공동체를 향해 돌진해 오는 거대한 위기와 기회의 쓰나미를 넘어서도록 우리를 인도할 훌륭한 총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경희의 총장상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 최근 애플은 아이폰 등 하드웨어 부문 혁신이 막히자, “애플은 더 이상 휴대폰 기업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컨텐츠와 서비스업”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새롭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컴퓨터업계의 절대강자였지만 수년째 적자에 시달리며 흔들렸던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형 클라우드 시스템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5월 초 뉴욕증시에서 꿈의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하며 당당히 부활의 축포를 쏘아 올렸고, 인도출신 CEO 사티아 나델라의 리더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총 133조 원을 투입하여 세계 제1위의 비메모리 부문 반도체 개발로 ‘제2의 반도체 성공 신화’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전문인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부와 삼성전자가 협력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KAIST에 반도체학과 학부과정을 설립하고 학생 전원에게 100% 장학금과 100% 취업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웃 일본의 대학들은 연간 25만 명의 AI 인재를 양성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고, MIT는 올 9월부터 전교생에게 AI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지정하였다. 최근 하버드대에선 마이를 샌벨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제치고 데이비드 맬란 교수의 <컴퓨터과학입문> 강좌가 가장 인기 있는 강좌로 자리했다. 이는 대학에서 전공의 영역을 넘어선 경계를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지금 우리 경희에게도 이런 뉴스메이커가 될 CEO형 총장이 필요하다. 우리대학은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간 공간적 거리로 인해 교육, 연구에 있어서 실질적 교류와 협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

한 인문사회, 의학, 공학 등 각각의 분야에서 훌륭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작 해당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환경을 획기적으로 활용하고 키워갈 탁월한 안목을 지닌 선장이 필요하다.

신임 총장은 우리의 눈앞에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국적 기업의 교육투자를 유치하여 강한 경희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획기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자산인 경희의료원을 동서신의학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력한 펀드도 들여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전체 구성원들의 염원 속에서 총장 선출 과정을 하나의 멋진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 과거 설립자께서 프론티어 정신으로 회기동 허허벌판을 누비며 경희를 일으켜 세웠듯이, 오늘의 우리도 다시 한 번 경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총장을 선출하여 새로운 도약 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

가슴 뛰는 경희캠퍼스 안에서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이 함께 역동하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한 번의 경이로운 경희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길 바란다. 우리 경희의 70주년은 이래서 각별하고 중요하다.